



임실군은 지난 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사)임실엔양념마을, 임실양념채소생산자연합회와 전라북도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엔양념식품산업의 성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양념산업 업무협약 체결

세계김치연구소-임실엔양념마을-임실양념채소생산자연합회와 추진

임실군은 지난 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사)임실엔양념마을, 임실양념채소생산자연합회와 전라북도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엔양념식품산업의 성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세계김치연구소(소장 박완수), (사)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생산자연체 작목반 회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임실엔양념식품산업육성사업은 양파, 생강, 마늘 등 양념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고흥·영세농의 소득증대와 임실고춧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2015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인·2인 세대 및 혼밥족 세대가 증가하고 현실에서 간편하고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양념식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춧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양념과 김치를 연구 개발하여 김치의 세계화로 한국음식의 한류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출연한 국가연구기관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임실엔양념식품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양념제품의 개발과 기술이전, 국내 및 세계의 양념시장 소비트렌드 조사, 마케팅 방향 등을 추진하며, 각종 연구자료의 공유·활용·정보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오는 11월 26일과 27일에 임실 고추가공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회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세계김치연구소가 후원(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 김치명인을 섭외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임실군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첫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행사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실군의 양념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임실군이 양념식품산업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자"며 "고추, 배추,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를 주로 생산·재배하는 고흥·영세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체택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26일과 27일에 임실 고추가공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회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세계김치연구소가 후원(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 김치명인을 섭외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임실군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첫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행사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실군의 양념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임실군이 양념식품산업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자"며 "고추, 배추,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를 주로 생산·재배하는 고흥·영세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체택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시가 원천천을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과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남원시, 원천천 생태 친수공간 조성

탐방객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 지리산 둘레길 원천천 물길 따라 자전거길 연결 등

남원시가 원천천을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과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시가지와 지리산 둘레길을 원천천 물길 따라 자전거길로 연결하기로 했다. 또, 천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친자연적 코리더(Corridor)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말 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원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시내권 요천에 개설된 인도교에서 시작한다. 시가지와 지리산을 요천과 원천천 제방 자전거길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도동동 요천 인도교 앞 천변 부지에

는 수변생태레저공원도 들어선다.

지리산 구룡포까지 천변 4개소에 수변 쉼터, 생태 학습장, 각종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원의 역사·문화·자연이원이 연계된 고품격 하천 문화 체험공간이 조성되어 체류·체류형의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천천 생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나·너·울' 진행

범죄예방활동 전개... 학교폭력 근절 쓰여진 양말 등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3일 자체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한 순창학생을 위한 Project "나·너·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너·울Project"란, "나·너·우리"의 줄임말로 학생(학교밖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이 "우리"라는나 공동체를 이루어,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을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여성청소년계 자체 프로그램 램프 하나이다.

이 날 여성청소년계와 생안계 직원은 합동으로 순창관내 일품공원, 학교 뒤 인적이 드문장소 등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순찰 도중 만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이 쓰여진 양말과 사탕등을 배부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편의점·슈퍼마켓·술집등을 돌며 학생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과 청소년보호법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제일고등학교 축제 현장인

일품공원 내 향토회관을 찾아가 차치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거나, 호기심에 술·담배 등에 손을 댈 것을 염려하여 학생 대상 조기 귀가등에 적극 홍보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알아보는 학생들은 경찰관에게 달려와 안기고 파이팅을 외쳐주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이 날 순찰을 하며 만난 제일고 학생은 "축제장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아저씨를 만나서 매우 반갑고, 늦은 시간까지 경찰아저씨들이 우리들을 위해 활동하시는걸 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최규운 경찰서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와 인적이 드문 장소등을 적극 순찰하고, 가출범·폭력서클을 발굴·해체하여 청소년 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부모역량 강화 힐링 프로그램

임실군은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난 3일 '자녀양육에서의 학부모 심리적 소진예방을 위한 체험 활동'이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이 주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지쳐있는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음 건강을 먼저 지킴으로써 자녀들과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또한 부모힐링체험(담양 축농원, 함평 국화축제장)과 사진미션, 자녀양육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나를 극복하고 미래의 나를 찾아 자존감을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오수정 주연)는 "이번 힐링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힘을 얻는 기회와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세계문화 어울림축제 열려

결혼이주여성 합창단 공연 등

고창군 다문화가족과 군민들이 화합하는 화합 한마당인 '고창 세계문화 어울림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는 지난 5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유성업 국회의원,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다문화가족과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 세계문화 어울림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댄스팀과 결혼이주여성 합창단 공연 등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기념식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군 다문화가족협의회 김홍균 회장(49,심원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강사 이은경(54,고창읍)씨가 고창군수 표창장을, 다문화가족 적십자 봉사단 김형태 회장(51,고창읍)과 한농연전북연합회 유계관 회장(60,고창읍)이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지난해까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다문화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올해

부터 군민들의 참여도 늘리고 '고창 세계문화 어울림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5개국 음식체험과 세계문화체험, 로보과학체험, 팬시우드 등 다양한 무료체험과 부대행사가 꾸며져 군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강연화 센터장은 "올해는 다문화가족정말의 축제가 아닌 군민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해보고 직접 체험해보며 서로 공감과 소통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군민들이 화합하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사업과 결혼이주여성들의 고향나들이 사업, 대학학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공원

임실군, 국가 암 검진 사업 실시

임실군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검진대상은 만 40세 이상(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씩수년도 출생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직장가입자/87,000원, 지역가입자/86,000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경우 1년에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20만원을 연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 방법은 신변증을 지참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암 검진 기관 부재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7일부터 오는 11까지 전주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정을 통해 읍·면 사무소 방문 진료를 실시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암은 조기발견으로 90%이상 완치될 수 있는 만큼 조기 검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방문 일정은 7일 강진면사무소, 8일 하문암 보건진료소, 9일 관촌면사무소, 10일 오수면사무소, 11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전 중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공직 성공비법 전수

순창군이 선배공무원이 후배공무원들에게 공직 성공비법을 직접 전수해 성공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올해 공직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의 집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인사제도, 보고서 작성방법, 회계제도, 예산, 공무원의 의무·금지사항, 복무·문서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신규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지식을 각 분야 베테랑 선배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또 선배공무원 특강시간을 마련해 양동업 기획실장과 설계준 행정과장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자세에 대해 당부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진행됐다.

특히 황숙주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과 공직자로서 꼭 갖춰야할 덕목에 대해 들려줘 신규 직원들이 공직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를 만들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신재효 생애사 판소리 학술발표회

동리 신재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고창군에서 열렸다.

지난 5일과 6일 고창군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는 '동리 신재효 생애사 연구'를 주제로 '제12회 고창 판소리 학술발표회'가 진행됐다.

7개의 연구 발표가 진행된 이번 판소리 학술발표회는 고창군에서 주최하고 판소리학회에서 주관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동학과 신재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재효의 광대기에 대한 연구, 영화 '서편제'와 '도리화'의 비교연구, 중언으로서의 동리의 생애사 연구 등 동리의 삶과 판소리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토의가 이뤄졌다.

판소리학술발표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으며 그동안 판소리사에서 있을 수 없는 업적을 남겼던 신재효 선생의 동리정사를 재조명하여 동리정사가 인근에 이름난 명인(名隱)으로서 많은 문사들과 풍류객들이 시를 읊고 판소리를 즐겼던 장소였음을 밝히는가 하면, 판소리를 수련·시연·평가했던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동리정사의 문화관광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신재효의 문학과 전기적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중요한 민중문화 유산으로 영구 보존하는 동리총서 발간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등 고창의 판소리 문화 전략의 수립은 물론, 한국 판소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